

##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조병수\*

### 1. 서론

『신약전서』는 “감으는 췌에 비 기다리는 것 곳치”<sup>1)</sup> 성경의 출판을 고대하던 우리나라가 받은 희대의 선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번역의 큰 성과인 『신약전서』가 잘 번역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신약전서』가운데 로마서의 번역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두 가지 관심에 집중한다. 첫째로 『신약전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번역되었는지 관심을 두면서 번역 원칙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번역 원칙 중에서 특히 저본 사용에 관한 언급에 초점을 모은다. 둘째 관심은 번역 원칙의 적용에 있다. 과연 번역 원칙이 『신약전서』에 잘 적용되었는지 묻는다. 무엇보다도 『신약전서』가 저본 사용에 충실했는지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한 예로서 『신약전서』 로마서를 그리스어 본, 중문 성경(文理역),<sup>2)</sup>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영어 성경들(KJV, RV)과 비교하면서 번역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때로는 번역 상태가 번역자들의 주장과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면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사실 분석에 치중할 것이다.

### 2. 『신약전서』의 번역 원칙

신약성경이 전권으로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땅에 마침내 『신약전서』가 출판되어,<sup>3)</sup> 1900년 9월 9일 주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출판기념 감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1) 이것은 「대한크리스도인회보」, 2권 38호(1898.9.21.)에 실린 “교우 노병선씨 열람훈일”(평양 여행기)에 들어 있는 말이다.

2) 중문 성경의 참조를 끝내면서 중문에 능통한 우심화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의 세밀한 자문을 받았다. 그의 친절한 도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3) 우리말 성경의 자세한 번역 역사는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에 실린 이만일,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7-54; 옥성득, “구역본 성경전서(1911)의 번역, 출

사예배를 드렸다.<sup>4)</sup> 후일 게일(J. S. Gale)은 이 작업이 “거의 십년”을 들인 일이라고 회고하였다.<sup>5)</sup> 사실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입국한 지 채 2년도 안 되어 성경번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87년 2월 7일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sup>6)</sup> 4월 11일 임시 조직과 규칙을 채용하고, 상임성경위원회(Permanent Bible Committee), 번역위원회(Translating Committee), 개정위원회(General Revising Committee)라는 3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였다.<sup>7)</sup> 한국어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893년 5월 16일에 상임성경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열어 상임성경위원회를 상임성경실행위원회(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로 전환하고, 번역위원회를 전임번역자회(Board of Official Translators)로 상향조정하고, 개정위원회를 전임번역자회로 이속시켜 폐쇄하였다.<sup>8)</sup> 전임번역자회에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게일, 아펜젤러, 트롤로프(M. N. Trollope) 다섯 명이 임명되었다.<sup>9)</sup> 이 특별회의에서 전임번역자회를 위한 6가지 항목이 제안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2항이다. 2항은 “한 그리스어 본문”(one Greek Text)을 사용한다는 것이다.<sup>10)</sup> 이때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영어 개역본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본문”(the Greek Text underlying English Revised Version)을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번역의 저본”(the most generally

---

판, 반포의 역사적 의미”, 136-182를 참조하라.

- 4)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2:6 (April 1906), 102.
- 5)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175.
- 6)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3 (1896), 347;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American Bible Society Record* 43 (November 1898), 164. 이 문서는 이만열 교수 수집, 『대한성서공회사 기초자료 25, ABS Bible Society Record 1883-1925』(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에 들어 있다.
- 7)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347.
- 8) A. Kenmure’s Letter to W. Wright, May 27, 1893에 동봉한 내용. 이 편지는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에 들어 있다. 참조,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348.
- 9) 참조, A. Kenmure’s Letter to W. Wright. 참조, Anonym,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The Korean Repository* 2 (1895), 196. 1895년에 전임번역자회는 레널즈(W. D. Reynolds)가 동참하면서 6명으로 늘었다. 참조,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2:6 (April 1906), 101. 번역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a) 한 번역자가 다른 회원들의 도움 없이 번역된 개인역(individual version), (b) 원번역자가 다른 회원들의 서면 비평과 제안에 기초하여 개인역을 개정한 임시역(provisional version), (c)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후에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 시험역(tentative version). 시험역을 3년 동안 사용한 후 공인역(authorized edition)으로 출판되었다. 참조,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1896), 350; 더 자세한 설명은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1898), 164;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102를 참조하라.
- 10) A. Kenmure’s Letter to W. Wright.

acceptable basis of translation)으로 간주했고,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면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을 따르기로 했다.<sup>11)</sup>

1893년 10월 11일 전임번역자의 첫 모임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번역방법을 조금 수정해서 채택하였다.<sup>12)</sup>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 개역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본문을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하고, 한국인 조사들(helpers/assistants)은 중국어 문리역(Delegates' Version)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sup>13)</sup> 한국인 조사들은 최병헌, 조한규, 이창직, 정동명, 김명준, 홍준, 송덕조, 이영대 등으로 개인역 단계에서 중문 문리역을 비롯한 여러 중문 성경들을 대본으로 한글 번역의 초역을 맡았다.<sup>14)</sup>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 개역본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1897년 번역자회의 서기인 스크랜튼이 켄뮤어 총무에게 ‘번역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비평 서적 목록’(list of critical books)이 있다.<sup>15)</sup> 그 목록에는 “저본이 된 흠정역 및 개정역 영어성경과 그리스어 본문을 대조해 볼 수 있는 옥스퍼드 그리스어 영어성경(1881)”<sup>16)</sup>이 발견된다. 이것은 옥스퍼드 그리스어 영어 신약성경(Oxford Gk & English NT authorized & revised in parallel columns, Scrivener)을 가리킨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모두 영어권 출신이었으므로 실제로 많이 이용된 것은 현대 본문비평을 담고 있는 1882년판 영어성경 개역본(RV)과 ‘공인본문’(Textus Receptus)에 의해 번역된 흠정역(KJV) 영어성경이었을 것이다.”<sup>17)</sup> 번역자들이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1899년 말에 사도행전까지 시험역을 완성하기 위해 매일 만난 번역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이 다숫분이 비단 본국글을 잘 알뿐 아니라 대한 방언도 잘 아는고로 이 스무를 맞춘지라... 이후에 식로 출판 하는 성경은 본말뜻도 구비하고 대한말도 순순히야 알아보고 공부하기에

11) Ibid.

12)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1896), 349;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101.

13)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1896), 349;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1898), 164는 이 말끝에 “보다 최근의 중국어 역본들과 함께”(together with more recent versions and translations in the Chinese)라는 내용을 덧붙여 한국인 조사들이 다양한 중국어 역본들을 참조한 것을 알려준다.

14) 『대한성서공회사 II』, 46f. 1906년 레널즈(W. D. Reynolds)는 한글 성경 번역에 관한 보고서에 외국인 번역자들과 한국인 조사들을 짝으로 묶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개일은 이창진(Ye Chang Jin), 언더우드는 김명준(Kim Myeng Jun), 레널즈는 김종삼(Kim Chong Sam)과 짝을 이루었다(“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101).

15) 『대한성서공회사 II』, 37.

16) Ibid., 39.

17) Ibid., 36.

편리홀듯 흐더라.”<sup>18)</sup>

그러면 이와 같이 한글 신약성경 번역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관심하는 로마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로마서는 1894년 스크랜튼이 야고보서와 함께 번역하였다.<sup>19)</sup> 그러나 1898년 1월에 이르도록 로마서는 번역만 되고 아직 출판되지 못하다가 5월에 이르러 비로소 인쇄되었다.<sup>20)</sup> 이런 과정 중에도 번역자회는 날마다 모여 이미 번역된 신약성경을 다시 교정하였는데,<sup>21)</sup> 그 가운데 로마서 교정은 1900년 5월 1일 개정에 착수해서 24회 모임 후 완성하였다. 로마서 개정을 마친 상임위원회는 인쇄에 들어갔고 마침내 1900년 7월에 『신약전서』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 『신약전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시험역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sup>22)</sup> 따라서 이제 번역자회에게는 이미 출간된 신약성경을 공인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떠올랐다. 이 작업은 1902년 2월부터 시작되어 1904년 5월 17일에 마침내 신약성경의 개정이 완성되었다.

이 개정 작업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번역자회가 따라간 본문이 영어 개역본의 기초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머의 그리스어 성경이었다는 보고이다.<sup>23)</sup> “『신약전서』의 번역저본은 일차적으로 1881년 옥스퍼드에서 간행된 팔머의 헬라이어 성경(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ed. by E. Palmer, Oxford, 1881)이었다. 이 차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영어권 출신이므로 팔머의 헬라이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어 개역본(RV)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인 번역자들이 사용한 중문 문리역(Delegates' Version)을 삼차 저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하지만 개정된 『신약전서』도 “상당히 많은 오류와 통일되지 못한 철자법과 어휘들을 가지고 있어서 불완전하였다.”<sup>25)</sup> 이로 말미암아 번역자회는 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로마서는 게일이 검토하였다. 이 『신약전서』는 1904년 말 인쇄되었는데(대한 광무 팔년 갑진 년), “한글성경 사상 최다의 오류를 지닌 판본이었다.”<sup>26)</sup> 켈뮤어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8) Ibid., 44.

19) Ibid., 41, 45.

20) 『대한성서공회사 II』, 49, 각주 7은 삼문출판소가 1898년 9월 연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5월의 로마서 인쇄에 관한 보고가 들어 있다고 말한다.

21) 「대한크리스도인회보」, 3:43(1899. 10. 25.): “날마다 모히여 이왕에 번역혼 신약 성경을 다시 교정홀식...”

22) 『대한성서공회사 II』, 55.

23) BFBS, *The Ninety-ninth Report*, 446; 참조. 『대한성서공회사 II』, 67.

24) 『대한성서공회사 II』, 68.

25) Ibid., 61.

26) Ibid., 63.

“그러나 교정쇄를 읽기 시작했을 때 익숙한 구절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발견했습니다. 글자들이 수없이 빠졌고 별의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sup>27)</sup>

계속해서 켄뮤어는 이렇게 비판했다.

“내가 보기에 분명한 사실은 현재 번역자들이 결코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지 않았고 그 방식도 정말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원고를 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손에 도달하기 전에 전체 신약성경 가운데 겨우 한두, 또는 두세 부분만 간신히 대충 검토되었고, 그것들마저도 **영역본이나 그리스어 원본과 대조되지 않았**습니다.”<sup>28)</sup>

1904년판 『신약전서』의 오류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자회는 1905년 2월 15일부터 1906년 2월 14일까지 재수정 작업에 임했다(240회 독회).<sup>29)</sup> 번역자회는 토요일과 주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모여 수정을 했는데, “변경이 제안되면... 각 번역문을 세 명의 한국인 조사들과 토론하고, **원문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현대 영역본과 비교하고, 사전들과 주석들을 참조했다.”<sup>30)</sup> 이렇게 볼 때 번역자회는 1904년판 『신약전서』를 재수정하면서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영어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서양 성경들과 중국어와 일본어 성경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1)</sup> 번역자회는 1906년 4월 14일 재수정을 끝냈고 드디어 『신약전서』 공인역(Authorized Edition)이 발간되었다.

### 3. 『신약전서』 로마서 번역 검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1906년판 공인역 『신약전서』가 과연 위에서 주장된 것처럼 번역 원칙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예로 로마서를 검토해 본다. 이제부터 번역자들의 주장

27) A. Kenmure's Letter to J. H. Ritson, December 21, 1904. 이 편지는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초대총무 켄뮤어 서신. 한국(상임실행)성서위원회 회의록 1900-1905』(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에 들어 있다.

28) A. Kenmure's Letter to J. H. Ritson, December 21, 1904.

29) 『대한성서공회사 II』, 66.

30)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103.

31) 번역자회는 1904년 5월에 새로 출간된 네스틀레(E. Nestle)의 그리스어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 Graece)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을 잠정하고 『신약전서』 로마서 번역본 그 자체를 살펴봄으로써 번역 상태가 과연 어떤지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국어(문법) 문제와 신학 문제는 다루지 않고 단지 번역의 기술 문제만 다룬다. 주로 관심사를 번역자회가 『신약전서』 번역 작업과 개정 작업에서 여러 차례 주장한 대로 그리스어 본문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두면서, 이와 더불어 한국인 조사들이 중국어 문리역을 얼마나 참조했는지 고찰하는 데 둔다. 앞으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약전서』의 로마서 번역에 나타나는 첫째 특징은 그리스어의 문법의 번역과 관련된 것들이다. 번역에서 복수가 단수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었고, 소유격 대명사가 번역되지 않으며, 수동태 대신에 능동태로 번역하는 것이다. 둘째로 『신약전서』의 로마서에는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거나 확대번역, 압축번역, 누락번역한 곳이 두드러진다. 셋째로 『신약전서』의 로마서는 원문에서 벗어난 번역이 있었다. 우선 순서에 관한 것으로, 단어 순서와 문장 순서가 다른 곳이 있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번역, 즉 품사, 시제, 의미 등에 나타나는 독특한 번역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약전서』 로마서 번역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신약전서』와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의 관계이다. 위에서 주장된 것처럼 『신약전서』의 번역자회는 대체적으로 공인본문을 따랐던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4에서 ἐν αὐτοῖς(Palmer, Nestle) 대신에 ἐν ἑαυτοῖς(TR)을 따라서 “서로 욕되게 하며”로 번역하고 있으며, 로마서 5:1에서 가정법 ἔχομεν(Palmer, Nestle) 대신에 직설법 ἔχομεν(TR)을 따라 “하느님으로 더브러 화평함이 있고”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공인본문을 따르지 않은 것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1에서 다섯 단어로 이루어진 공인본문에는 “무정혼자”와 “불상히녀이지아니 혼자” 사이에 “화해하지 않는 자”(ἀσπόνδους)가 들어 있다. 그러나 『신약전서』는 1900년판부터 이 구절에서 줄곧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다(이것은 마치 RV처럼 이 구절을 네 단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sup>32)</sup> 만일에 한국인 조사들이 중국어 문리역을 참조했다면 틀림없이 다섯 단어를 보았겠고 “화해하지 않는 자”(ἀσπόνδους)를 “構怨”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1896년에 출판된 브리지만-컬버튼역(Bridgman/Culbertson's Version)에도 이 단어가 “構怨者”로 번역되어 들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신약전서』는 어떤 특정한 그리스어 저본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과 중국어 문리역 또는 그 외의 당시 최근의 중국어 역본을 신중하게 참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약전서』 로마서의 번역 상태를 검토해 보자.

32) 이런 경향은 『개역』과 『개역개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 3.1. 그리스어 문법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그리스어 문법의 번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 3.1.1. 복수형

무엇보다도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복수를 단수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명사의 경우에는 집합명사로 취급되는 경향이 높다. 금슈와 버리지(1:23), 쇼경/어린 으희(2:19-20), 전에 지은 죄(3:25). “~자”로 번역할 때는 거의 단수로 번역되었다. 예를 들면, 힝흔자(2:2, 3), 범죄흔자(2:11), 어두은 곳에 잇는자, 미련흔자(2:19-20), 경건치안논자(5:6), 죄를 범흔자아니흔자(5:14), 엇은자(5:17). “~것”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은밀흔 거슬(2:16). 복수형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임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총칭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문맥상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로마서 2:14는 “이방 사람”(ἔθνη)이라고 단수로 번역함으로써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인칭대명사 οὗτοι도 단수로 번역되었다(“이 사람은”). 대명사의 경우, 종종 수의 일치에 혼란을 일으킨다. 로마서 1:32는 앞에서 “너희가 알고도”라고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 단수로 “저만 힝할(ποιούσιν) 썬 아니라”로 번역한다(1:32). 역으로 한 사람을 복수 대명사로 잘못 표현한 곳도 있다. 엘리야를 지시하는 단락에서 “하느님이 너희게 엇더케 디답헷섯는뇨”(11:4)로 번역하였다.

#### 3.1.2. 소유격 대명사

이렇게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대명사의 소유격이 번역되지 않는 현상이 매우 짙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인칭대명사의 삼인칭 단수 소유격(αὐτοῦ)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한다. “그 여러 선지자로”(1:2), “그( 일흠을 위햏야”(1:5), “그 아들의 복음을”(1:9), “그 보이지아니흔 것슨”(1:20),<sup>33)</sup> “그 의로오심을”(3:26), “그 믿음”(4:5), “그 사랑을 우리의게”(5:8), “그 피를 인햏야”(5:9), “그 아들의”(5:10), “그 살으심을 인햏야”(5:10). 이것은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말의 특성을 잘 고려한 문법적 변용이다. 중국어 문리

33) 그러나 같은 구절에서 “그의(αὐτοῦ) 영영헷신 능력”은 잘 번역되었다.

역은 “其”를 사용하여 중국어의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대명사를 번역하였다(1:5, 9; 4:5; 5:10). 문리역은 꼭 소유격을 드러내야 할 경우에는 “上帝之”와 같이 실명사로 번역했다(1:20; 5:8). 이렇게 볼 때 문리역이 전적으로 참조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3.1.3. 수동태

셋째로 『신약전서』 로마서는 자주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너희를 곱게 헤투옵이니”(εις τὸ στηριχθῆναι ὑμᾶς, 1:11),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게 부탁옵이니라”(ὅτι ἐπιστεύθησαν 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3:2), “모든 입을 막고”(πάν στόμα φραγῆ, 3:19), “률법과 선지자가 증거히 거시니라”(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3:21). “그 밋음을 의로 덩헛실 거시니”(λογίζεται ἡ πίστις αὐτοῦ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4:5, 9). 능동태 말투는 문리역을 많이 반영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본래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기에 거부감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번역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니심과 곱치”(ὡσπερ ἠγέρθη Χριστὸς ἐκ νεκρῶν, 6:4)에서는 주어가 상실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이런 전환 번역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심판할 때에** 이긱심을 었으시리라”(νικήσεις ἐν τῷ κρίνεσθαί σε, 3:4)이다. 이것은 문리역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鞫時). KJV와 RV는 이 구절의 번역에서 견해가 갈린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34)</sup> “온 세상으로 헛여곰 하느님 압헤서 덩죄헛녇느니라”(ὑπόδικος γένηται πᾶς ὁ κόσμος τῷ θεῷ, 3:19)는 세상이 정죄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무엇인가를(예를 들면, “모든 입”) 정죄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떤 때는 역으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번역한 경우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러나 아담으로브터 모세식지 아담의 죄와 곱치 죄를 범헛지아니헛자도 **스망아래 다스림을 밧으 니**”(ἀλλὰ ἐβασίλευσεν ὁ θάνατος ἀπὸ Ἀδάμ μέχρι Μωϋσέως καὶ ἐπὶ τοὺς μὴ ἁμαρτήσαντας ἐπὶ τῷ ὁμοιώματι τῆς παραβάσεως Ἀδάμ, 5:14)이다. 이것은 “사망이 …를 다스렸다”로 번역했어야 한다. “스망 아래 다스림을 밧았거든”(ὁ θάνατος ἐβασίλευσεν, 5:17)도 같은 경우이다. 『신약전서』 로마서는 두 경우에 문리역을 참조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문리역에는 능동형으로 사망이 다스린다(死乘權)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5:21 문리역 참조).

34) KJV: “when thou art judged”; RV: “when thou comest into judgment.”

## 3.2. 표현 방식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보인다.

### 3.2.1.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

그 가운데 하나는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신약전서』 로마서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하는 넓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ἔθνος*의 복수형 경우, “나라”(1:5), “이방 사름”(3:29), “만국”(πολλῶν ἔθνων, 4:17, 18) 등으로 번역되었다. *γράμμα*의 경우는 “경문”(2:27, 29)과 “의문”(7:6)으로 번역되었다. *εἰκών*은 “형상”(1:23)과 “모양”(8:29)으로 번역되었다. *σπέρμα*는 “씨”(9:7)와 “조손”(9:8; 11:1)으로 번역되었다. *ὁμολογεῖν*은 앞뒤 절에서 서로 다르게 “알다”(10:9)와 “증거하다”(10:10)로 번역되었고, *ἐξομολογεῖν*은 “찬미하다”(14:11), “알다”(15:9)로 번역되었다. 심지어 *πιστεύειν*은 같은 절 안에서 “신중하다”와 “밋다”로 다르게 번역되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준다(10:14). *σάρξ*는 “육신”과 “육테”로 번역되었는데, “육신”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1:3; 2:28; 4:1; 6:19; 8:3, 4, 5, 6, 7, 8, 9, 13; 9:5, 8; 13:14), “육테”는 한번을 제외하고는 특히 7장에서 그렇게 번역된 현상이 나타난다(3:20; 7:5, 14, 18, 25). “육테”로 번역한 것은 문리역보다 일관적이다. 왜냐하면 문리역에서는 바로 앞의 구절들에서 *σάρξ*를 人으로(3:20), 欲으로(7:5, 14), 情欲으로(7:18), 外心으로(7:25)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ἐπαγγελία*, *ἐπαγγέλλεσθαι*는 때때로 “언약”(4:13, 14, 20), “언약하다”(4:21)로 번역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아주 다르게 “허락”(9:4, 8, 9; 15:8), “허락하다”(1:2)로 번역한다.<sup>35)</sup> *διάκονος*는 “부리는 자”(13:4[2번]), “슈종드느 이”(15:8), “집스”(16:1)로 번역되었다.<sup>36)</sup>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ἀγαπητός*는 “친흔 벗”(16:5), “스랑흔느”(16:8, 9, 12)으로 번역되었다. 문리역은 이 단어를 16:5, 8에서는 “良朋”으로, 16:9, 12에서는 “愛之”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신약전서』 로마서는 16:8을 제외하고는 문리역을 따른 셈이다.

35) *ἐπαγγελία*, *ἐπαγγέλλεσθαι*는 문리역에서 거의 예외 없이 “許”로 번역되었다(브리지만-쿨벗 순역도 마찬가지이다). 『신약전서』 로마서는 부분적으로 문리역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한 것이다.

36) 『신약전서』 로마서에서 *λειτουργός*도 “집스”로 번역되어 혼란을 일으킨다(15:16). 이 단어는 “일군”으로 번역되기도 했다(13:6).

조금 복잡한 것은 *πνεῦμα*의 번역이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가리킬 때는 “신”(1:4; 2:29) 또는 “성신”(5:5 등)으로 번역된다. *πνεῦμα ἅγιον*은 일률적으로 “성신”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ἅγιον 없이 *πνεῦμα*가 단독으로 “성신”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8:4, 5, 6). 로마서 8:9, 11에는 *πνεῦμα*가 “신”과 “성신”으로 번역되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로마서 7:6에는 “새 마음으로”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서 2:29에서처럼 의문과 경문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키는 말(“신” 또는 “성신”)로 번역하거나, 최소한 『개역개정』처럼 “영의 새로움으로” 번역했어야 한다. 게다가 로마서 8장의 중반은 전체적으로 성령과 관련된 단락이지만 *πνεῦμα*가 “종의 마음”과 “양심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다(8:15). 역의 경우도 발견된다. 때때로 *πνεῦμα*는 사람의 영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으로 번역되었다(“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신은 의를 인하여 살니라”; 8:10; “성신이 친히 우리 신으로 더브러”, 8:16). 그런데 『신약전서』 로마서는 *πνεῦμα*가 사람의 영을 가리킴에도 “마음”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1:9). 이것은 *καρδία*와 큰 혼돈을 일으킨다(2:15). 로마서 2:29와 5:5에 *καρδία*와 *πνεῦμα*를 구분해서 번역했다는 점에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번역에 자유성이 있었다는 것이 되며, 나쁘게 말하자면 번역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된다.

### 3.2.2. 확대번역

『신약전서』 로마서는 확대번역이라는 표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확대번역은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높이거나 친절하게 내용을 설명하려는 마음과 심지어는 성경을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 (1) 장엄체

첫째로 확대번역은 때때로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부사어들이 첨가되었다. 그것들은 “뭇흠내”(1:10), “능히”(2:3, 18; 3:23; 8:33, 35),<sup>37)</sup> “가히”(11:33[2번]; 15:16),<sup>38)</sup> 주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한 “곳”(1:4, 12, 18; 2:5; 3:22, 26; 7:4, 18, 21; 8:14, 17, 23, 28; 9:3, 24, 30;

37) 그 외에도 『신약전서』 로마서에 여러 차례 “능히”가 더 사용되었는데 *δυνατός*(4:21), *δυνάμενοι*(15:14), *δυναμένω*(16:25)를 번역한 것이다.

38) 9장 이전에는 “능히”를 자주 사용하다가 “가히”로 바뀐 것은 번역자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준다.

10:1, 8; 14:9; 15:6; 16:3). “맞당히”(13:11; 14:1; 15:1, 2),<sup>39)</sup> “반드시”(14:11; 15:24, 29)<sup>40)</sup> 등이다.

## (2) 보충

『신약전서』 로마서에서 문구를 보충하는 현상은 첫 구절부터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려 스도가 되어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틱흠을 넘었스니”(1:1). 여기에서 εἰς εὐαγγέλιον θεοῦ를 “전하기 위하여”라고 보충 번역하였다.<sup>41)</sup> 로마서 1:18는 “나타나서 ... 별히 시느니”라고 번역되었는데 마지막 단어는 보충이다. 그저 “나타난다”(ἀποκαλύπτεται)가 전부이다. “더희가 하늘을 알디(γνόντες) 하늘님으로 알아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1:21)에서 “알아서”와 “알디”를 반복한 것이나, “하늘님의 영광을 변히야(ἥλλαξαν) ... 디신히였느니라”(1:23)에서 “변히야”와 “디신히였느니라”를 반복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스스로 지혜 있는 데히나”(1:22)에서 “스스로”는 보충이다.<sup>42)</sup> “네게 죄를 덩흠이니”(σεαυτὸν κατακρίνεις, 2:1)에서 “죄를”, “하늘님의 노히심을 싸하”(θησαυρίζεις σεαυτῷ ὀργήν, 2:5)에서 “하늘님의”, 로마서 2:5에서 “기드리나니”, “대개 하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히지 아니하시느도다”(οὐ γὰρ ἔστιν προσωποληψία παρὰ τῷ θεῷ, 2:11)에서 “사람을”, “이 사람은 룰법이 업서도 즈기가 즈귀의게 룰법이 되느니라”(οὗτοι νόμον μὴ ἔχοντες ἑαυτοῖς εἰσιν νόμος, 2:14)에서 “즈기가”, “우리는 더희보다 나은쟈뇨”(3:9)에서 “더희보다”, 사람의 피를“(3:15)에서 “사람의”, “임의”(3:23; 5:10; 9:6; 14:3), “일즉이”(16:2), “사람이 그 피를 밋느니라”(3:25)에서 “사람이”, “하늘님이 자기가 의로오샤”(3:26)에서 “하늘님이”, “법을 힘흠이냐”(3:27)에서 “법을”, “오직 더의게 빗지은 거스로”(4:4)에서 “더의게”, “아브라함의 모든 즈손의게”(4:16)에서 “아브라함의”, “하늘님이 언약히신 거슬”(4:21)에서 “하늘님이”, 로마서 4:22에서 “이 밋음을”, “물 붓듯히심이니”(5:5)에서 “물”, 로마서 5:16에서 “주신 바 은혜”(τὸ δῶρημα)와 “주신 은혜”(τὸ χάρισμα)에서 각각 “주신 바”와 “주신”, 로마서 9:9에서 “명년”, 로마서 11:29에서 “스스로”는 보충이다.

## (3) 의역

『신약전서』 로마서의 확대번역 가운데 의역이 차지하는 자리는 상당히 크

39) 이것은 문리역의 “當”에 해당한다.

40) 이것은 문리역의 “必”에 해당한다.

41)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전하기”는 빠졌다.

42) παρ’ ἑαυτοῖς가 들어 있는 롬 11:25; 12:16에는 “스스로”가 잘 번역되었다.

다. 먼저 인칭의 의역을 살펴보자. 로마서 3:4의 경우에는 이인칭을 삼인칭으로 의역했다. “하느님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라 칭함을 얻으시고”(ὁπως ἂν δικαιωθῆς ἐν τοῖς λόγοις σου). 로마서 6:3에서 일인칭(“세례를 받은 우리”, ὅσοι ἐβαπτίσθημεν)이 삼인칭(“세례를 받은자”)으로 번역되었다.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단어의 의역이 많이 보인다. 로마서 1:25에서 κτίσεις를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라고 풀어 번역하였다. 마찬가지로 τὸν κτίσαντα를 “만물 창조하신 주”라고 풀어 번역하였다. “할례 받은자의 조상”(4:12)은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의 조상”(πατέρα περιτομῆς)이다. 로마서 15:8의 “할례 받은자”도 같은 경우이다. “선행하는 자”는 그냥 “선행”이고, “악행하는 자”는 그냥 “악행”이며, “권세 있는 자”는 그냥 “권세”이다(13:3). 로마서 4:19에서 “태의 죽음”(τὴν νέκρωσιν τῆς μήτρας)을 “단산”이라는 말로 멋지게 의역했다. 로마서 5:13은 “까지”를 의미하는 전치사 ἄχρι를 “전에”로 의역했다. 로마서 5:15에는 ἡ δωρεὰ ἐν χάριτι가 나오는데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주신 은혜가”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δωρεὰ가 “주신”으로 의역된 것이다. 단어의 의역 가운데 περιτομή와 ἀκροβυστία의 용례는 매우 두드러진다. 이 현상은 로마서 4장에서 자주 나온다. 로마서 4:10은 ἐν περιτομῇ를 “할례 후”로 의역했고, ἐν ἀκροβυστίᾳ를 “할례 전”으로 의역했다. 이것은 대단히 과감한 의역이다. 로마서 4:11에서는 후자를 “할례를 맞지 아니한 새에”로, 로마서 4:12에서는 “할례 맞기 전에”로 의역했다.

나아가서 『신약전서』 로마서는 어구를 의역하였다. 로마서 1:28에서 하나님 알기를 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καθὼς οὐκ ἔδοκίμασαν τὸν θεὸν ἔχειν ἐν ἐπιγνώσει)을 “하느님 알기를 슬허하게”라고 바꾸어 번역했다. 이 경우 δοκιμάζειν이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 어쨌든 이 번역은 『개역개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로마서 2:2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τὸ κρίμα τοῦ θεοῦ ἐστὶν κατὰ ἀλήθειαν)는 것을 “하느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줄을”로 번역했다. 단어의 뜻을 풀어 쓴 예도 있다. “울코 그름을 분별하리니”(2:15)는 본래 정죄하거나 변명한다(accusing or excusing, κατηγορούντων ἢ καὶ ἀπολογουμένων)는 의미이다. “률법 아래 잇는 자의게”(3:19)는 본래 “률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τοῖς ἐν τῷ νόμῳ)이다. 로마서 11:32에는 “범위 안에 두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가두다”(συγκλείειν)를 풀어쓴 것이다. 반대로 내용을 압축하여 번역한 예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하심을 인하여”(διὰ τῆς ἀπολυτρώ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3:24)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인하여”로 번역되었다. 로마서 13:10에서 “스랑은 율법을 온전히 일우느니라”는 명사문인

πλήρωμα νόμου ἢ ἀγάπη를 동사문으로 의역한 것이다. 이것은 문리역과 일치한다(愛者盡律法也).

『신약전서』 로마서는 자주 명사화된 분사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이 일하면”(4:4)은 “일하는 자에게”(τῷ δὲ ἐργαζομένῳ)가 맞고, “믿으면”(4:5)은 “믿는 자에게”(τῷ δὲ μὴ ἐργαζομένῳ πιστεύοντι)가 옳고, “믿으면”(4:24)은 “믿는 자들에게”(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가 바르다. 이런 의역은 전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로마서 4:20에는 단어의 의역, 어구의 의역이 함께 나온다. “의심이 나서 요동치아니 하고 하느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에 더욱 견실하라.” “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불신(ἀπιστία)이다. 전치사구인 “하느님의 언약을 바라보며”(εἰς δὲ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θεοῦ)는 “요동치아니 하고”와 “믿음에 더욱 견실하라” 사이에 번역될 수 없다. 게다가 εἰς δὲ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θεοῦ가 하나의 절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διακρίνειν 동사를 서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43)</sup>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문장이 의역된 경우도 발견된다. 로마서 4:11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믿음으로 된 의의 인으로 받았다”(σημεῖον ἔλαβεν περιτομῆς σφραγίδα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τῆς πίστεως)가 “표를 받은 거슨 곳 할례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시니”로 의역되었다.

### 3.2.3. 누락 번역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대명사의 번역이 자주 생략되었다. “너의”(σου, 2:5), “그의”(αὐτοῦ, 2:5), “그들의”(αὐτῶν, 3:13), “그에게”(αὐτῷ, 4:3). “너희”(ὑμῶν, 12:1). 때때로 인칭대명사를 “사람”이라고 번역하면서(1:20, 24) 막상 “사람”(ἄνθρωπος)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1:18).<sup>44)</sup> 『신약전서』 로마서는 축약 번역을 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4에서 “그들의 마음들의 정욕대로”(ἐν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τῶν καρδιῶν αὐτῶν)를 단순히 “그 정욕대로”라고 번역하였다. 또한 로마서 2:9에서는 “사람의 각 영혼에”(ἐπὶ πᾶσαν ψυχὴν ἀνθρώπου)를 간단히 “모든 사람의 게”라고 번역하였다.<sup>45)</sup>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로마서 5:6, 8에서 신학적인

43) 참조, F. W. Danker,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BDAG), 3r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31.

44) 로마서 2:16에는 “사람”을 번역했다. 단지 복수(τῶν ἀνθρώπων)로 번역했다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로 중요한 “아직”(ἔτι)이 두 번 모두 누락되었다. 로마서 2:25에는 두 번 ἄν이 사용되었다. 하반절에 “만일”을 번역한 것처럼 상반절에도 같은 용례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때로는 축약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축약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로마서 9:10의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듯”(Ρεβέκκα ἐξ ἑνὸς κοίτην ἔχουσα, Ἰσαὰκ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에서 “한 사람”(ἑνός)이 생략된 것은 로마서의 주장을 약화시킨 것이다. 문리역에는 이것이 번역 안되었고, 브리지만-컬벗슨역에는 “一人”이라고 명시되었다. 로마서 11:25인 “대개 이스라엘 사롬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 이방 사롬이 드리오기까지 니르리니”(ὅτι πῶρωςις ἀπὸ μέρους τῷ Ἰσραὴλ γέγονεν ἄχρι οὗ τὸ πλήρωμα τῶν ἔθνων εἰσέλθῃ)에서 치명적인 누락이 발생했다. 로마서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πλήρωμα가 번역되지 않은 것이다. 문리역은 이것을 “衆異邦人”이라고 번역했고, 브리지만-컬벗슨역은 “異邦人之盈數”라고 번역했다.<sup>46)</sup>

### 3.3. 번역의 다양성

『신약전서』 로마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번역 원칙에서 벗어난 다양한 번역이 보인다는 것이다.

#### 3.3.1. 순서의 다양성

가장 먼저 『신약전서』 로마서가 단어와 문장의 순서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살펴보자.

##### (1) 단어 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3:24)라고 번역한 간단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어와 술어가 바뀐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16은 본래 “**주신 바 은혜**는 **흔 사롬**을 **인**하야 **범**흔 죄로 더브러 **긋지아니**하니”(οὐχ ὡς δι’ ἑνὸς ἀμαρτήσαντος τὸ δῶρημα)라고 번역해야 할 것을 거꾸로 “**흔 사롬**을 **인**하야 **범**흔 **죄**는 **주신 바 은혜**로 더브러 **긋지아니**하니”라고 번역하였다. 로마서 6:4는 “우리가 그 **스망**을 **합**하야 **세레**를 **밧음**으로 예수와

45) 『개역개정』은 “각 사람의 영에게”로 번역하였다. 『신약전서』 로마서가 잃어버린 ψυχὴ를 살려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모든/각”을 “사람”에게 붙인 것은 여전히 잘못이다.

46) 1912년 판 웨레체브스키역도 “衆異邦人”라고 번역했다. 참조. 金炅洙(編著), 『1912년에 발간된 한문성경』(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10).

흡씩 장스 헝엿느니”(συνετάφημεν οὖν αὐτῷ διὰ τοῦ βαπτίσματος εἰς τὸν θάνατον)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나 εἰς τὸν θάνατον를 앞으로 빼내어 번역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에 합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문장 순서

『신약전서』 로마서가 로마서 1:13에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를 맨 끝에 둔 것은 잘못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모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자신이 여러 번 가고자 한 것과 지금까지 길이 막힌 것, 두 가지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러번 너희게 가고져 하는” 것에 붙여 번역했어야 했다. 이것은 『개역개정』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로마서 3:4는 “무릇 사름은 다 거죽 되되 오직 **하느님**은 춤 되시니”라고 번역되었는데, 순서를 바꾸어 “오직 **하느님**은 춤 되시되 무릇 사름은 다 거죽 되니”(γινέσθω δὲ ὁ θεὸς ἀληθής, πᾶς δὲ ἄνθρωπος ψεύστης)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개역개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로마서 3:8에서 “우리가 착흔 일을 일우게 **하라** **하라** 악흔 일을 **하자** **말을** **흔다**”는 문장은 사실 “엇던 사름이 말흔다”(φασίν τινες)의 부정사 화법이다.<sup>47)</sup> 그러나 『신약전서』 로마서는 이것을 본문의 맨처음으로 끌어내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역시 『개역개정』에 계속 남아 있는 번역이다. 로마서 5:11은 καυχώμενοι ἐν τῷ θεῷ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ι’ οὗ νῦν τὴν καταλλαγὴν ἐλάβομεν를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얻고** 쯔흔 더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즐거워 **하느니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관계절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화목함을 얻었다”(δι’ οὗ νῦν τὴν καταλλαγὴν ἐλάβομεν)를 주절 안에 혼합해서 번역한 경우이다. 오히려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함을 얻었느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 3.3.2. 부정확한 번역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품사, 시제, 의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있다.

47) (KJV) And not rather, (as we be slanderously reported, and as some affirm that we say,) Let us do evil, that good may come?; (RV) and why not (as we be slanderously reported, and as some affirm that we say,) Let us do evil, that good may come?

## (1) 품사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품사가 정확하지 않게 번역된 경우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는 명사화된 형용사를 단순한 형용사로 번역한 것이다. 특히 νεκρός 같은 단어의 용례가 그렇다. 『신약전서』 로마서에서 ἐκ νεκρῶν 는 대체적으로 “죽은 가운데서”로 번역되었다(4:24; 6:4; 10:9; 11:15). 로마서 1:4의 ἐξ ἀναστάσεως νεκρῶν 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십시오”라고 번역되었는데, 정확하게 번역했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가 되어야 한다.<sup>48)</sup>

## (2) 시제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시제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는 본문들이 있다. 로마서 1:13에서 “내가 여러번 너희게 가고저 하는 거슬”(ὅτι πολλάκις προθέμην ἐλθεῖν πρὸς ὑμᾶς)은 과거시제로 번역됐어야 한다. 로마서 3:20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οὐ δικαιοθήσεται)는 미래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로마서 3:23에서 과거시제로 번역된 “하느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느니라”(ὑστεροῦντα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는 현재시제로 번역되어야 한다.

## (3) 의미

『신약전서』 로마서에는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지 않은 본문들이 보인다. 아주 간단한 예로는 “죽고 심각에”(μεταξὺ ἀλλήλων τῶν λογισμῶν, 2:15)로 번역한 것이다. 로마서 1:23에서 ὁμοίωμα는 “우상”으로 번역되어 『개역개정』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로마서 2:22에 번역된 “우상”(εἰδωλον)과 혼돈을 일으킨다. 아마도 이 단어는 “모습”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sup>49)</sup> 로마서 4:20의 “의심이 나서 요동치아니 하고”(οὐ διεκρίθη τῇ ἀπιστίᾳ)는 문리역을 참조한 것 같으나 어떻게 보아도 석연치 않은 번역이다. 로마서 11:16에서 ἀπαρχή를 “천신하는 썩 반죽”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薦新之”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문리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약전서』 로마서는 “썩 반죽”이라고 번역함으로써 “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문리역보다 훨씬 못해지고 말았다. 오히려 로마서 8:23과 16:5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번역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KJV나 RV를 제대로 참조했다면(the firstfruit) 이런 오류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서 12:11의 τῷ πνεύματι ζέοντες는 “열심을 품어”로 번역되었다(fervent in spirit[KJV/RV]). 이것은 『개역개정』에까지 남아 있는 표현이다. 문리역은 이것을 “論志則宜

48) 로마서 4:17과 14:9에는 형용사의 명사화를 잘 표현하였다: “죽은자들.” 단지 복수로 번역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49) (KJV) “an image made like to”; (RV) “the likeness of an image of.”

鏡”이라고 완전히 잘못 번역하였다. 아마도 『신약전서』 로마서는 문리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브리지만-퀄벳슨역 같은 다른 중국어 번역을 참조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브리지만-퀄벳슨역에는 이 구절이 『신약전서』 로마서와 똑같이 “懷熱心”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로마서 14:11에서 “모든 입이 반드시 하나님의 찬미하리라”는 문리역(萬口必讚我)을 수정하여(“하나님의”를 더함) 따르는 바람에 γλώσσα(“혀”)를 “입”으로 오역하는 결과를 낳았다. 로마서 15:26의 “깃버 돈을 내어”는 문리역(喜悅捐金)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κοινωνίαν τινὰ ποιήσασθαι(to make a certain contribution[KJV])의 의미를 너무 금전적으로만 축소하고 말았다. 또한 로마서 15:29도 πλήρωμα εὐλογίας(the fulness of the blessing[KJV/RV])을 문리역(厚祉)을 따라 “두터운 복”이라고 번역하여 의미가 약화되어 버렸다.

『신약전서』 로마서는 종종 긍정 직설문을 이루는 πολλῶ μάλλον 용법의 문장들을 부정 의문문으로 만드는 오류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거든 하물며 그로 말미암아 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지못하겠느냐”(5:9)이다. 이 용법을 “더욱더”로 번역하면 긍정 직설문이 된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경우는 로마서 5:10, 15, 17에서 반복된다. 로마서 5:20에서 “법을 세운 거슨 죄를 만케 하라함이라”(νόμος δὲ παρεισηλθεν, ἵνα πλεονάσῃ τὸ παράπτωμα)는, 마치 범죄의 많음이 의도적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 4. 결론

『신약전서』는 성경이 출판되기를 고대하던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충분한 해갈을 가져다 준 즐거운 일이었다.<sup>50)</sup> 그래서 『신약전서』가 피땀의 결실로서 누구도 흉볼 수 없는 희대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작품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로 번역 원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신약전서』를 계획한 번역자회는

50) 「그리스도신문」, 5권 1호(1901.1.3.)에 영국 성서공회(B.F.B.S)는 다음과 같이 신약성경 출판물을 광고하였다: “신약을 지금 대한서 다 국문으로 판출하였는디 스복음과 여러 가지 편지와 합이 이십칠권을 합부 하였는디 갑슨 스십전이오 복음과 각편지를 각권으로 판미히되 갑슨 이전 광고 하온갑과 갓호니 경향 각처에 무론 남녀교우 호고 **성경출판 되기를 오래 고 되 었던니 지금은 족히 희갈을 하겠시니** 대단히 즐거운 일이 될너라.” 『대한성서공회사 II』, 53, 각주 27 참조.

처음부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했다. 그 원칙은 그리스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고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참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의 작업 끝에 실제로 출판된 『신약전서』는 그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약전서』 1900년의 초판은 말할 것도 없고 1904년의 개정판도 켄뮤어가 불만을 표현했던 것처럼 번역자들이 그리스어 원본과 영역본을 그다지 신중하게 대조한 것 같지 않다.

둘째로 『신약전서』의 번역 상태를 볼 때 외국인 선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약전서』 번역에서 대부분 한국인 조사들의 작업이 주를 이루었고 그들의 문체로 번역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만큼 한국인 조사들은 주체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체의식이 강한 한국인 조사들은 때때로 문리역의 견해까지도 과감하게 수정하는 모습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전서』 로마서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로마서 1:11에서 『신약전서』는 문리역의 “聖神之”를 따르지 않고 “신령한”으로 번역했고, 로마서 16:27에서 문리역의 “耶蘇基督名”에서 “名”을 떼어버렸다. 문제는 그들의 작업 결과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조사들이 전적으로 번역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들을 “조사”라는 용어보다는 “번역자”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

셋째로 『신약전서』에 들어 있는 독특한 번역 특징이 『개역』을 넘어 『개역개정』에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세기를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전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새로운 번역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자극한다.

#### <주요어>(Keywords)

『신약전서』(1906), 로마서, 번역 원칙, 저본, 오역

The New Testament(Korean Old Version), Romans, translation principles, Basic Text, mistranslation.

(투고 일자: 2011. 8. 23, 심사 일자: 2011. 8.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9. 29.)

<참고문헌>(References)

1. 성경

1) 한글 성경

『신약전서』, 1900(대한 광무 사년 경자) (*The New Testament in Korean*, 1900, printed by the “Yokohama Bunsha”).

『신약전서』, 1906(대한 광무 십년 병오) (*The New Testament in Korean*, 1906, Printed for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which represents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The American Bible Society and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by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Tokyo, Japan).

『신약전서』, 京城: 미국성서공회, 1911.

2) 그리스어 성경

*Textus Receptus*, <http://studybible.info/Stephanus/Romans>

*H KAINH DIAΘ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Palmer, ed., Oxford: Clarendon Press, 1882 (orig. 1881).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 Nestle, ed., Württemberg: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898.

3)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1611/1769), 대한성서공회 CD-Rom 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The Parallel New Testament.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Being the Authorized Version Arranged in Parallel Columns with the Revised Ver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5.

*Revised Version*(1881)

<http://www.archive.org/details/revisedversionn00unkngoog>

4) 중문 성경

『文理 舊新約聖書』, 上海: 聖書公會, 1933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1933 = Original Edition, 1854).

『新約全書』, 福州: 大美國聖經會, 1896 (*Classical New Testament,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1896)

金旻洙(編著), 『1912년에 발간된 한문성경』,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10.

## 2. 사전

Danker, F. W.,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BDAG). 3r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3. 논문과 저서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옥성득, “구역본 성경전서(1911)의 번역, 출판, 반포의 역사적 의미”,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136-182.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7-54.

Anonym,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The Korean Repository* 2 (1895), 195-197.

Gale, J. S.,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Reynolds, W. D., “Bible Translation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3 (1896), 347-350.

Reynolds, W. D., “Bible Translation in Korea”, *American Bible Society Record* 43 (November 1898), 164-165.

Reynolds, W. D.,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2:6 (April 1906), 101-103.

## 4. 정기간행물

「그리스도신문」, 5:1 (1901. 1. 3.).

「대한크리스도인회보」, 2:38 (1898. 9. 21.): “교우 노병선씨 열람홀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3:43 (1899. 10. 25.): “성경을 번역함.”

BFBS, *The Ninety-ninth Report*, London: The Bible House, 1903, 446.

## 5. 자료집

이만열 교수 수집, 『대한성서공회사 기초자료 25, ABS Bible Society Record 1883-1925』,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A. Kenmure's Letter to W. Wright, May 27, 1893,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A. Kenmure's Letter to J. H. Ritson, December 21, 1904,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초대총무 켄뮤어 서신. 한국(상임실행)성서위원회 회의록 1900-1905』,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Abstract>

**Evaluating the Translation of the Book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in the Korean New Testament (1906)**

Prof. Byoung-Soo Cho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examines how faithfully the translation principles were exercised for the Korean New Testament, in particular the Romans, which was initially published in 1900 and revised in 1904 and 1906. It is often insisted that, for both the original translation and the revisions, the Board of Translators set the rules to use Palmer's Greek edition as the basic text; to make reference to the English Revised Version; and to let the Korean helpers consult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However, a closer examination hints us that these rules were not kept reliably. Evidences show that the Greek grammar was not applied to a number of passage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inappropriate expressions, exaggerations, and omissions. Presumably, the draft of the Korean assistants would have been adopted by and large. In addition, the Korean New Testament (1906) influenced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61)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is study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translators did not take the original Greek into consideration very seriously. They did not consult even the English R.V. carefully while the Korean helpers dealt with the Chinese Version at their disposal. Secondly, the Korean Old Version ought to be considered as the work of the Korean helpers since they made use of their free language style for translation. They deserve, therefore, to be called 'translators,' not 'helpers' or 'assistant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ve made many mistakes. Lastly, the latest Korean version (NKRIV) influenced by the Korean New Testament (1906) should be also thoroughly examined and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necessary to publish a more reliable and accurate version in Korean immediately.